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출국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11일(월) 윤현우 오정수(캐나다) 14일(목) 김성현(미국)

<기도생활 지침>

- 1) 부족하다고 느껴도 기도하라.
완전해진 다음에 기도하려면 평생 기도할 수 없다.
- 2)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 3)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
- 4)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라.
어렵고 큰 것부터 시작하려다 기도 자체를 잃기 쉽다.
- 5) 믿음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여 기도를 회피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다.
- 6) 아무때나 어디서나 생각 날 때마다 즉시 기도하라.
미루거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려면 기도의 기회를 잃는다.
- 7)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
기도는 독백의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다.
- 8)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도하라.
다만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
- 9)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가를 상상하라.
기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0)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 그러하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우월교회 중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 호

2021년 1월 1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은 정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런 2020년 한 해 동안 한 검색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되어졌다고 정리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1위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2위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더해 언택트 여행(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여행), 언택트 소비(소비자와 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행과 소비, 그 뿐인가요? 교회와 모든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이뤄진지 오래입니다. 한 해 동안에 검색된 단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로 내부적으로는 왕이 이방 나라인 앗시리아의 신을 섬겼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앗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말씀과 같이 [6.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7.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8.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떼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9."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세상, 파괴없는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시고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함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은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의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팬데믹의 상황이 있었고 그 때 기독교인들이 얻게 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 적절한 치료법이 없던 시절 가족들도 길거리에 내다버린 환자들을 돌보고 음식과 물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들이 보여준 삶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통해 나누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갈 내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려운 이웃들과 지금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모이기 힘들게 될 날들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3)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
<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3편

제목 : 550, 552, 542, 543, 455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50 552 542 543 455 455

1-2 주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관찰: 시인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을 원하며 요청하고 있다.

해석: 삶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자.

3-4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고백합시다.

관찰: 시편의 화자는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절대자)께서 나를 보고 응답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해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적용: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에게 관심을 갖기 보다는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구하자.

5-6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관찰: 시인(화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하며 구원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다.

해석: 신앙인은 어려울 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희망을 보고 실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자.

긍정적인 자세, 마음, 말을 하자.

공동체 제자도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셨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공동체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몸서리 쳐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나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뜻만 꼭 붙들고 있으며, 당신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흠여 놓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마12:30)

형제자매들과 모여 예수님과 형제자매를 향한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공동체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내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형제자매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온전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완전한 공동체적 삶을 증거하는 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일하는 공동체, 생산공동체, 그리고 밥상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이 새로운 일원을 주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연합하라고 강요하기는 싫습니다. 공동체 삶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분투가 주는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 [공동체 제자도]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예레미야서 29 : 12-14a 인도자
2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39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26 : 36-46 설교자
369 사랑방
“ 깨어서 기도하여라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6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정혜정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의 대상,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 결단.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39,42,44>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 깨어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40-41>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시험, 즉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정낙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아이들의 작은 천국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선한 도움으로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2001년 중국에서 겨자씨 선교회를 통해 정태일 목사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기독교교육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사랑방공동체 정태일 목사님, 이월영 사모님, 3방 식구들,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로운 만남들은 오늘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15년 동안 “땅에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생활을 하신 사랑방공동체 식구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저를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재롱이학교 선생님들, 꾸러기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특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사랑방공동체 멧쟁이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교육의 학문과 현장을 균형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동안 아이들과 함께 재롱이학교와 꾸러기학교, 그리고 어린이학교의 사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공동체학교 선생님들은 날마다 써주신 일기장, 졸업사진집, 여행사진, 일상의 사진 등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다보니 정말로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캠프 사진, 졸업여행사진을 보면서 끊임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공동체학교는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움과 가르침

가끔씩 아이들은 행복한 사진을 중국가족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wechat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100KM 이상 도보여행갈 수 있어요?” “학생들은 7명인데 교사가 4분이세요.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심지어 “외국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할까요?” “귀족학교가 아닌가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서 한번 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찾아온 분들이 계셨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를 좀 아는 중국후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사랑방공동체 학교 자료를 좀 보내주라.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못 보내겠다. 공동체 학교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그 후배는 공동체훈련을 통해 우리 사랑방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도 장신대 기독교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좀 고민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만 보내주면 과연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토대와 장이 없으면 가능할까?

세계 신앙공동체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브루터호프의 설립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책 가운데 “애들아, 오늘은 하루 종일 놀아라, 숲에 가서 놀든지, 개나 고양이와 함께 놀러 무나.” 꾸러기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린 그냥 놀아요.” 역시 공동체학교는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며 행복한 곳입니다.

꾸러기학교 학부모 꾸러기 공루아 아빠 해은 전도사

당근~

당근~ 이제는 익숙함으로, 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알람이 울립니다. “이거.. 괜찮은데?”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목공소 소장님께 연락이 옵니다. 좋은 책장이 나왔다고 예약해 놓을 테니 쓰겠냐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던 같은 책장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번에 어린이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꾸며주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제가 국민학생[졸업할 때는 초등학교]일 때부터 써온 책상을 놓아주었습니다. 학생의자는 또 생활공동체 식구 중 한분이 주신 것을 집 한 칸에 잘 모셔두었는데 그 의자가 자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방에 책장을 하나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는 비용을 목공소장님께 여쭙보았다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물어봤구나...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어드렸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목공소 소장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에 걸리셨는지, 좋은 원목 책장이 나온 것을 보시고 눈에 밝혀 연락을 주신 것이겠지요? 약속시간도 잡아주시며 함께 가 주셨고 또 생활공동체 식구 한분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공동체의 트럭으로 책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목공소로 가져다 놓으라십니다. 나중에 집에 온 책장을 보니 일일이 리폼 하셔서 새것으로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오셔서 책장 고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당근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용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활발히 서로 교류하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생활공동체 안에서는 활발히 일어났고 나아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동체를 왔을 때부터 변함없이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하면 언제나 문 열어 환영해 주십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의 선물들도 있습니다. 단체 방에는 물건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점이라면 무료라는 것이겠죠. 물려받은 아이들 옷을 보다보면 어린이학교 졸업생의 이름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고 또한 탄소소비절약을 통해 환경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 예수님 사랑의 온기가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잠언 5장

인 도 : 정재훈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지구환경을 위한 기도>

북극발 한파로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체감온도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고, 대만에서는 강추위로 126명이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평년보다 2~10배 많은 눈이 내려 제설 작업하다 눈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갈시키는 환경 파괴적인 생활 방식과 소비적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을 위한 기도>

(1)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2) 새터민 정착준비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도록.

(3) 이 땅의 새터민들과, 가난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풍성하게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좋은 출발을 위해서>

사랑방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한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한파가 들이쳐 온통 겨울 왕국이 되었습니다. 눈도 많이 내려서 온 마당이 하얗게 뒤덮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수도가 동파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 후반에는 날씨가 풀려서 쌓였던 눈도 많이 녹고, 일상을 지내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활 공동체 식구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줄어든 활동량이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올겨울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재훈 전도사>